

“차별 없는 자비 나눔 부처님 마음 전해요”

적십자 부산지사 불교지구협의회 봉사활동 현장

대한적십자 부산지사 불교지구협의회(회장 김순희·이하 적십자 부산불교지구)가 자비 봉사를 펼치고 있는 부산 구서동 무료급식소를 2월 10일 찾았다.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는 해일암(주지 우신)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 봉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매주 화,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해일암 무료급식소에는 하루 700여 명의 독거 어르신 및 노숙자들이 찾고 있다. 이른 아침 급식소에서 활동하는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 봉사자들의 손길은 분주했다. 차가운 영하의 날씨와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도 누구하나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10년 동안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승현(63)회원은 무료급식소가 곧 쉼터라고 말한다. “봉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만난 듯 가슴 따뜻함을 느낀다. 특히, 어르신들이 손을 잡아 주며 고맙다라고 해 주실 때 뿌듯하다.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람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의 봉사 활동은 무료급식 뿐만이 아니다. 불교도 노인 요양원 상량식, 연화원, 개금 복지관에서 어르신 목욕 봉사도 하고 있다. 통도사 자비원 및 관자재 요양 병원에서 환자들의 옷과

방석, 커튼 등을 만들어 나누고 있다. 양정 복지관, 금정복지관, 수영복지관 등 복지관 복지 후원 사업 활동도 빠지지 않는다.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성애원 보육생들을 위한 목욕봉사도 하고 있다. 기독교라는 종교적 차별도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학금 지급, 현열 캠페인 및 부산 반역동 원오사가 운영하는 공부방 환경 지원 등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의 활동은 부산과 경남 전 지역에 펼쳐지고 있었다.

10개 단위회 · 170여명의 회원 활동

지역 · 종교의 구분 없이 자비 나눔

재단 · 재해 지역 구조 활동에 적극

김경남(70) 회원은 “저 또한 건강이 안 좋지만 이곳에 나와 봉사를 할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가족 같은 도반들과 함께 봉사하며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다는 생각에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봉사하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큰 선물을 받는 기분이라며 얼굴에 활짝 미소를 띠었다.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에 대해 회원들은 “재단 지역을 위한 구호 활동”으로 뽑았다. 평상시에는 각



적십자 부산지사불교지구협의회가 2월 10일 부산 구서동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각 봉사를 하다가 재난이 생겼을 때는 모든 회원들이 함께 모인다고, 재난 지역이면 어디든 찾아가 현장을 직접 보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특히, 지난 부산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는 수해 지역을 방문해 빨래 봉사, 휴향물 청소, 지원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해민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다. 또한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당시 봉사작업에 참여하는 등 전국의 재해 재난 지역을 방문해 복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는 올해 12주년을 맞는다. 박추자 초대 회장은 적십자 내 불교 모임을 발원하며 2003년 3월 10일

창립법회를 가졌다. 현재 적십자 부산불교 지구회는 회원 170명으로 불어다, 연등단, 참사량단, 불심단 등 10개의 단위회로 이루어져 있다. 이 활동이 씨앗이 되어 지난 2012년에는 경남 지역에 적십자 내 두 번째 불교 단체를 만들어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한편,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는 3월 10일 창립 기념 법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적십자 회관에서 봉행한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순희 회장은 “세대를 이어 주는 젊은 인재 영입”이 목표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방송과 신문을 통한 홍보로 회원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법운종 종정 지암 스님, 한국 제 1대 승왕에

1월 24일 캄보디아 땃봉 대승왕에게 인준서 받아

대한불교법운종 종정 지암 스님이 1월 24일 캄보디아 대승왕 땃봉 스님으로부터 한국 제 1대 승왕 임명 인준서를 수여 받았다. 또한 이 자리에서 법운종 소속 보운·보우·보성·보명 스님 등은 삼장법사 법위도 받았으며, 법운종은 캄보디아와 불교문화교류 및 학술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했다. 특히 국제종교문화연맹(회장 보운)은 대법당에서 바라춤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불교문화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 제1대 승왕 임명 인준서 수여 장면.

지암 스님은 “동남아 여러 불교국가를 순례하다가 캄보디아를 우연히 방문했는데, 빈곤에 고통받는 현지인들을 직접 목격한 후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에 7년 정도 캄보디아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10여년 동안 국경을 초월해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해온 법운종과 국제불교문화재단(회장 보운)은 1월 25~28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시 폴

렌 초등학교를 방문, 학교페인트작업 및 사랑의 우물파기, 학교정문 보수, 학용품 전달, 빈민촌 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봉사활동을 함께 한 보운 스님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중 마실 물조차 없는 곳이 상당수다. 많은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해마다 목숨을 잃고 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언제나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지하 암반수를 얻기 위해 무려 100미터까지 파는 대공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파도소리 들으며 불교 명상 배웁니다”

미국 폴브라이트 장학생, 부산 한마음선원 템플스테이 체험

미국 폴브라이트 재단 장학생들이 부산 한마음선원을 찾았다.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 주처로 열린 폴브라이트 장학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2월 7일~8일 부산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에서 열렸다. 행사는 ‘참나의 줄을 잡고 하나로 포행과 ‘We are the 대장부’, 예불 및 촛불 재 등으로 진행했다.

마래사 씨는 “명상을 통해 마음과 몸의 조화를 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마음의 성장을 체험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터 씨는 “‘We are the 대장부’ 시간을 통해 생각을 들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유익했다. 스님께서 설명 해주신 주인공의 의미, 참나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월 8일에는 와신, 요가 및 파도소리 명상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파도소리 명상을 위해 부산 영도 절영 해안 길을

찾아 절경을 감상하고 평화로운 명상 시간을 가졌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참석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한 에너지 불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 마음의 힘을 믿고 노력해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폴브라이트 장학생을 위한 템플스테이는 2014년 여름 광명선원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안양 한마음선원 국제문화원 혜각 스님은 “이번 참석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라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인연을 지속적으로 맺고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브라이트 장학재단은 전 세계 각지의 우수 학생들의 미국 유학지원은 물론 미국 내 학부 졸업생들이 해외 연구도 지원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미국 폴브라이트 장학생들이 한마음선원에서 개최한 템플 스테이에 참석했다. 사진은 부산 영도 앞 절영 해안길 ‘파도 소리 명상’ 모습

자비암 ‘육경합부 · 선림보훈’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지정

부산 동래구 자비암(주지 자란)의 <육경합부>(六經合部)와 <선림보훈>(禪林寶訓)이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51호와 제152호로 1월 27일 지정됐다.

자비암 <육경합부>는 다종이로 목판을 인쇄한 인경본 6권 1책으로, 구마라집 한역의 <금강반야바라밀경>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수량은 98장이며, 1460년(세조 6) 선종(선종도회소 흥천사)에서 조성한 목판본을 원판으로 삼아 인쇄한 기록유산이다.

일부의 장은 훼손되어 있으나, 광곽(匡廓)이나 본문 내용이 뚜렷하고, 인경 시기는 성종 때로 추정된다.

부산시 문화재 관계자는 “자비암 육경합부는 세조 및 성종 때 목판본이나 인경본의 조성 체계와 목적, 불교계의 사상적 경향, 선종도회소 흥천사의 단월(檀越) 성분, 당대 활동 인물 등과 같은 다양한 기초 정보를 담고 있어, 15세기의 역사·문화적 실체를 밝혀주는 원천 자료로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51호로 지정된 <육경합부>

또한, 자비암 <선림보훈>은 종종 20년(1525)에 순천 모후산 대광사(母後山 大光寺)에서 개간한 2권 1책의 목판본이다. 자비암 선림보훈의 판본은 고려본 다음으로 간행된 판본으로 판단된다.

비록 표지가 없고 마지막 판장이 탈락되기는 했으나, 현재 보존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들의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자비암 소장 선림보훈은 임진왜란 이전 판본이고, 동일 판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통해 간기가 확인되며, 특이한 어미를 지니고 있어 서지학적인 가치가 있다.

하성미 기자

대불총 대구지회 2대 최문수 회장 취임

(사)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회(이하 대불총이라 함) 대구지회 2대 회장 취임식이 2월 7일 대구 동구 승가불교대 무파사(학장 일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구지회 지도법사 성담 스님, 지광 스님,경도 스님, 고은 스님,혜명 스님, 일관 스님과 김홍래 본회 공동회장, 대구지회 최문수 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으로 취임한 대구지회 최문수 회장은 “한국전기공사에서 40년 동안 전기를 밝혀왔다. 소임을 맡는 동안 지역사회에



2대 최문수 회장 취임식 장면

불을 밝혀 사랑받는 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일불교문화교류 여성부, 신년하례회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여성부(회장 백명숙·이하 한일불교교류 여성부)는 2월 11일 ‘창립 11주년 기념 및 올미년 신년하례회’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 사무총장 법등 정사, 前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양산 스님, 백명숙 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일불교교류 여성부는 6월 경기도 화성 용주사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지원, 10월 일본 방문 등을 2015년 계획으로 세웠다. 또한 5월 봉추 무차량발광양, 동지 팔죽 나눔 등도 진행된다.

하성미 기자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

사찰 연등 및 전선(별명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함초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형(노형지) 전분홍 연분홍 탁색 금색

연등규격: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제사형 S형 T분리형

LED하형 LED홀더형 견인지 초

▶원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